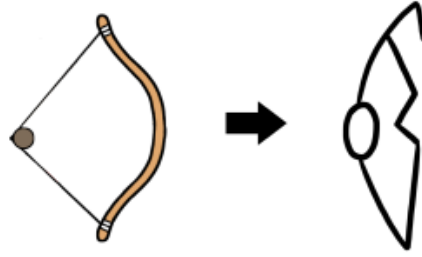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彈

탄알 탄:

彈자는 '탄알'이나 '탄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彈자는 弓(활 궁)자와 單(홀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彈자를 보면 단순히 弓자에 점이 찍혀있는 𠂔 모습이였다. 이것은 쇠 구슬이나 돌맹이를 날리던 화살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弓자와 單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의 彈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單자는 '단→탄'으로의 발음역할과 함께 이것이 무기와 관련된 글자임을 전달하고 있다. 彈자는 이렇게 '탄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탄알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탄핵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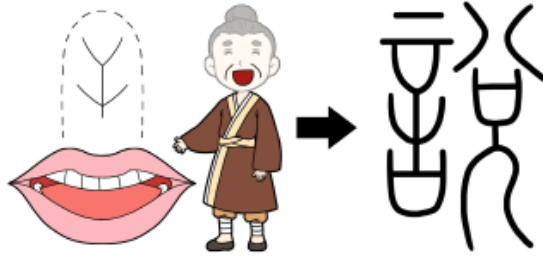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脫

벗을 탈:

說자는 '말씀'이나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說자는 '말'과 관련된 여러 글자 중에서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가장 두드러져 있다. 說자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說자는 言자와 兌(기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입을 벌려 웃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을 벌린 모습을 그린 兌자에 言자가 결합한 說자는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說자는 주로 '이야기하다'나 '서술하다', '유세하다'와 같이 입을 벌려 크게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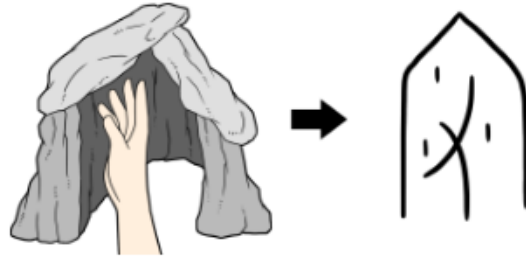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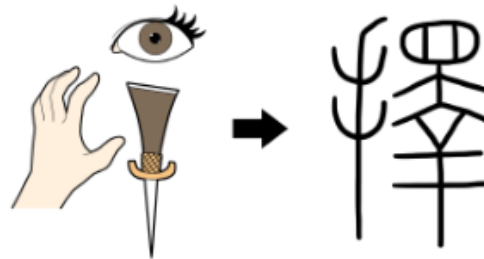
探

찾을 탐

探자는 ‘(더듬어)찾다’나 ‘깊이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探자는 手(손 수)자와 㝱(점점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㝱자는 횃불을 들고 동굴 속 깊은 곳을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점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探자를 보면 동굴 속을 손으로 더듬는 𢇛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의 究(연구할 구)자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火(불 화)자가 더해지면서 횃불을 들고 동굴 속을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手자가 더해졌고 해서에서는 횃불이 단순히 木(나무 목)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探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探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모습인 것이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는 手자가 아닌 水(물 수)자가 쓰인 深(깊을 심)자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다. 동굴 속만큼 물이 깊다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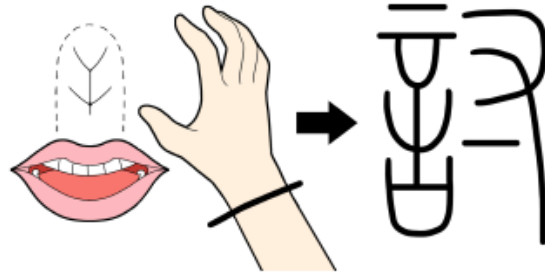
가릴 택

擇자는 ‘가리다’나 ‘분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가리다’라는 것은 사물을 구별한다는 뜻이다. 擇자는 手(손 수)자와 𠂔(염불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죄수를 눈으로 감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죄수를 감시하는 모습을 그린 𠂔자에 手자가 더해진 擇자는 잡혀 온 죄수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를 판가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擇자는 ‘가리다’라는 뜻 외에도 ‘구별하다’나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4
-
215

회의문자①



討

칠 토(:)

討자는 '치다'나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討자는 言(말씀 언)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손끝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를 뜻하는 지사문자(指事文字)로 '마디'나 '법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법도'라는 뜻을 가진 寸자에 言자가 결합한 討자는 '법도가 있는 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討자는 본래 '탐구하다'나 '연구하다'와 같이 사물의 진리를 찾는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법도가 없는 상대를 혼내준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치다'나 '공격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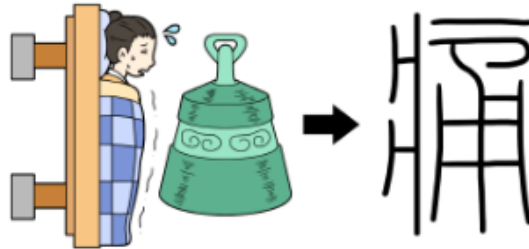
소전

討

해서

4
-
216

회의문자①



痛

아플 통:

痛자는 '아프다'나 '슬프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痛자는 疒(병들 념)자와 甬(길 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甬자는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이다. 종을 치면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痛자는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듯이 온몸으로 고통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두통, 치통, 생리통과 같은 통증은 작은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몸 전체를 괴롭힐 정도로 아픔을 준다. 痛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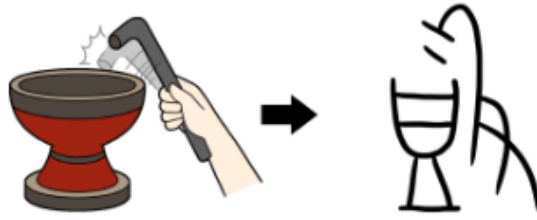
痛

소전

痛

해서

회의문자①



投

던질 투

投자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投자는 手(손 수)자와 殳(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投자의 갑골문을 보면 手자가 아닌 豆(콩 두)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기 그릇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投자의 본래 의미도 '두드리다'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豆자가 手자로 바뀌게 되면서 '던지다'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鬪

싸움 투

鬪자는 '싸우다'나 '승패를 겨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鬪자는 鬥(싸울 투)자와 鬪(세울 주)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鬪자는 북을 세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鬥자는 머리를 흔들리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鬪자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鬪자는 단순히 豆(콩 두)자가 소리역할을 하고 寸(마디 촌)자가 손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강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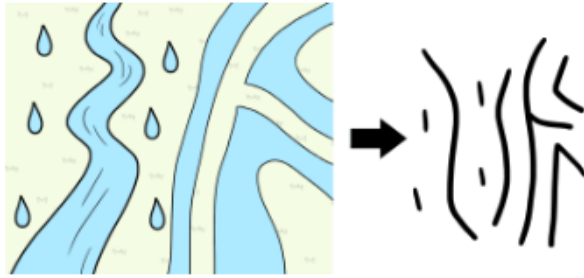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派

갈래 파

派자는 ‘(물의)갈래’나 ‘지류’, ‘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派자는 水(물 수)자와 辰(갈래 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 자는 물이 갈리며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물의)갈래’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다시 水자가 더해진 派자는 이것이 물과 관련된 글자임을 표현한 것이다. 派자는 때로는 ‘학파’나 ‘종파’처럼 사상이나 견해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 물길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가는 모습에 비유해 ‘보내다’나 ‘파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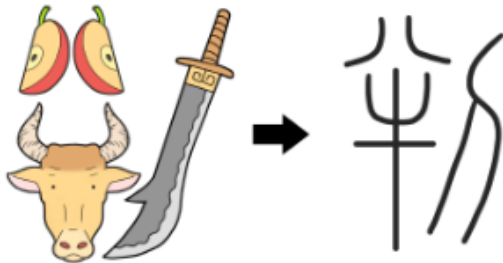
派

소전

派

해서

회의문자①



判

판단할 판

判자는 ‘판단하다’나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判자는 半(반 반)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半자는 소머리에 八(여덟 팔)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判자는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半자에 刀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물을 나누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判자는 ‘구별하다’나 ‘판단하다’와 같이 진실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判

소전

判

해서